

# “제주밭담 엑셀런트!”... 실천계획 보완 과제로

전문가 리포트

“농업과 농촌 발전 새로운 대안”



강승진

세계농업유산 등재 TF팀·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세계농업유산등재TF팀은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나나오시와 가나자와시에서 개최된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국제회의(포럼)와 한·중·일 워크숍에 공식 참석, 제주밭담에 대해 발표하고 홍보활동을 펼쳤다. 사진은 국제회의의 장면. 오른쪽 아래 사진은 일본, 중국, 인도 등 3개국 6개 지역이 올해 새로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돼 인증서를 받는 모습. 강경민기자



## 4. 세계농업유산 등재 가능성

제주의 상징이자 농업유산인 '제주밭담'이 세계농업유산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3관왕에 이어 야심차게 도전중인 '제주밭담'의 세계농업유산 등재 여부가 이르면 연내에 결정될 전망이다.

아직 속단할 수는 없지만 국제사회의 호평이 이어져 신청서 보완과 향후 실천계획, 국제 전문가들과의 인적네트워크, 도민사회의 지원과 공감대가 차질없이 이뤄진다면 등재가 가능할 것이라 전망이 높다.

그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세계 각국이 세계농업유산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등재신청을 하고 있는 등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세계농업유산 국제포럼=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열린 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국제회의(포럼)와 한·중·일 농업유산자원 워크숍은 제주밭담이 세계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재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 포럼에서 제주는 천년 이상을 이어온 밭담을 통해 제주민들이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도 농업활동을 이어온 지혜와 문화·경관·역사적 특성을 강조하고 세계농업유산으로서의 등재 가치와 차별성을 집중 부각시켰으므로써 각국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이끌어냈다. 일본 국립 사가대 이웅철 교수는 “제주밭담은 세계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높다”면서 “국제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와 신청서를 보완하는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제주밭담 세계농업유산 등재 가능성=제

## 각국서 세계농업유산 등재 신청 잇따라 경쟁 치열 세계농업기구 핵심 관계자 제주방문 사실상 실사 신청서 보완·8월 제주 개최 한중일 워크숍 분수령

주밭담의 세계농업유산 등재 가능성은 매우 유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3일부터 이틀간 제주를 방문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핵심 관계자들은 “제주밭담이 세계농업유산으로 자격이 충분하며 다섯가지 영역(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FAO의 코하프칸 세계농업유산기금 의장은 4일 김선우 제주자치도 환경·경제부지사와의 환담에서도 “제주밭담이 훌륭하고 탁월한(엑셀런트) 유산”이라고 극찬했다. 제주밭담의 경관이 매우 흥미진진하며 이용(경작), 규모, 매우 독특한 풍광, 독창성 면에서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다는게 FAO 관계자

들의 평가다. FAO 세계농업유산 사무국의 메리 제인 기술담당은 “이번 방문이 실사와 다름없다”며 제주밭담 답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최종 등재까지는 절차와 보완작업이 녹록치 않다. 코하프칸 의장은 무엇보다 다섯가지 기준에 대한 보완작업과 더불어 등재 이후 실천 프로그램인 ‘엑셀플랜’을 강조했다. 엑셀플랜은 세계농업유산으로서의 제주밭담이 지속가능한 보존·활용과 전통농업문화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심의 과정에서 이를 꼼꼼히 챙겨 등재 여

부를 결정하는 중요 잣대로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제주자치도, 농업 주체와의 유기적 협력과 지원을 강조했다. 지방정부 차원의 조례 제정과 핵심 관리구역 설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선우 제주자치도 환경·경제부지사는 FAO 관계자들과의 환담에서 이를 실행에 옮길 것을 약속하고 FAO가 제주밭담의 세계농업유산 등재에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제주자치도는 이미 등재 신청서를 통해 제주 밭담의 지속적인 보존 활용을 위한 3대 과제, 6대 전략을 제시했다. 보존·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과 제주밭담·돌담의 전수조사, 장인 지정·육성, 시범지역 지정, 전통농법·친



김선우 제주도 환경·경제 부지사가 제주를 방문한 FAO 코하프칸 세계농업유산기금 의장 일행과 환담을 갖고 기념품을 전달했다. 강경민기자

환경농업, 단계별 관리시스템 정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 이를 더욱 보완하는 후속대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의 김경두 사무관은 “농어촌 다원적자원 보전관리법’을 제정 목표로 입법을 추진중이며 농업유산 관련 예산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농업유산자원에 대한 지원기준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밭담은 오는 8월 제주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워크숍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워크숍에는 FAO 관계자와 세계농업유산 등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엔대학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이 때 제주밭담에 대한 등재 가능성과 보완대책을 점검하고 최종 등재에 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제주자치도는 이런 과정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면 제주밭담의 연내 등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특별취재팀·강시영·강경민·김지은기자

**아울렛몰 원가세일**  
 EAST PAK (BAG PAK 브랜드) 원가세일

힐크릭 골프웨어 / 언더웨어 프린세스 올라라 명품 아동복 / EAST PAK (BAG PAK 브랜드)

신라면세점  
 노원오거리  
 맥심호텔  
 그랜드호텔  
 명품아울렛몰

위치 연동 253-13번지 (그랜드호텔 서쪽 맥심호텔 뒤)  
 문의 746-5689, 011-440-8166